

- **주요 뉴스:** 중국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0.5%p 인하. 성장둔화 및 부동산 우려 등이 배경
 - BIS, 오미크론 사태는 코로나 19 관련 경계태세를 늦출 수 없다는 의미
 - IMF,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면 ECB는 완화적 기조 유지할 필요
 - 중국 헝다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 채무조정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평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2%], 달러화 강세[+0.2%], 금리 상승[+9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오미크론 우려 완화로 은행 및 에너지주 강세 등이 견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전망 등이 반영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6%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영향
 독일은 피치의 이탈리아 신용등급 상향 영향 지속되며 강보합 마감

※ 원/달러 1M NDF환율(1181.1원, -2.6원) 0.2% 하락, 한국 CDS 보합

		12/6일	12/3일	전일대비			12/6일	12/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591.7	4,538.4	1.17%	국채 금리 10y	미국	1.43%	1.34%	9bp
	유럽	468.71	462.77	1.28%		독일	-0.39%	-0.39%	0bp
	중국	3,589.3	3,607.4	-0.50%	CDS 5y	한국	21bp	21bp	0bp
	일본	27,927	28,030	-0.36%		중국	51bp	53bp	-2bp
	한국	2,973.3	2,968.3	0.17%	위험 지표	EMBI+	-	405	-
환율	달러지수	96.28	96.12	0.17%		VIX	27.18	30.67	-11.38%
	유로화	1.1285	1.1315	-0.27%		WTI유	69.49	66.26	4.87%
	엔화	113.48	112.80	-0.60%	원자재	구리	433.3	426.7	1.56%
	위안화	6.3763	6.3765	0.00%		금	1,778.7	1,783.3	-0.26%
	원화	1,183.0	1,180.1	-0.25%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중국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0.5%p 인하. 성장둔화 및 부동산 우려 등이 배경

- 이번 결정으로 국내 은행들의 평균 지급준비율이 8.4%로 낮아지며, 향후 1.2조위안 규모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 해당 조치는 12/15일부터 시행되며, 이는 금년 들어 7월(원자재 가격 급등 대응)에 이은 2번째 인하 조치
- 다만 지급준비율 인하가 기존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 향후에도 계속해서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피하고,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
- 블룸버그의 David Qu는 이번 조치가 경제 역풍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효과는 특히 2022년 1/4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 또한 내년에는 지급준비율의 추가 인하(0.5~1.0%p)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BIS, 오미크론 사태는 코로나 19 관련 경계태세를 낮출 수 없다는 의미

- 정책 당국과 금융시장은 최근의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특히 중앙은행들은 이전보다 복잡한 현실에 직면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 또한 전세계는 이로 인해 이미 주가 하락과 불확실성 증대를 겪고 있다고 평가
- 한편 아시아 신흥국은 그 동안 달러화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달러화 환율 변화로 인한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 이에 외화 유동성 리스크를 면밀히 살피고, 보다 유연한 달러화 헤지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 IMF,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면 ECB는 완화적 기조 유지할 필요

- 현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중기적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가정. 다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관련하여 상방 위험이 좀 더 높은 시기이기에 관계 당국이 시중 물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촉구
-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홀츠먼 총재는 2022년 유로존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2% 이하를 나타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 다만 인플레이션은 내년 초 정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영란은행 부총재, 내년 4월 연간 물가상승률은 5%를 넘어설 가능성

- 브로드벤트 부총재는 수급이 팽팽한(tight) 노동시장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 한편 오미크론과 관련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한 가지 원인만을 고려하여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

■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거시경제 여건의 안정에 정책 초점을 맞출 계획

- 경제성장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2022년에 선제적 재정정책 및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방침. 한편 중국 사회과학원은 정부에 2022년 성장률 목표로 5.3%를 권고

■ 중국 헝다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 채무조정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

- 해당 위원회는 그룹의 향후 리스크를 완화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 이번 조치는 채무조정이 임박했음을 의미. 시장에서는 채무조정 이후 국영기업들이 관련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헝다그룹의 건설 프로젝트를 인수할 것으로 전망
- 블룸버그에 따르면,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 양광100(Sunshine100)이 1.79억달러 규모의 사채 원리금 지불에 실패. 이에 12/6(월) 주가는 87% 폭락

■ 일본 총리,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를 반영하여 노동자 임금인상을 유도할 방침

- 기시다 총리는 최근 임금인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시장에서는 정부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대응과 소비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금인상을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트(12/6 현지시각 기준)

- 유로존 12월 섹터 투자자신뢰: 13.5, 11월(18.3), 예상치(15.9)
- 독일 10월 제조업수주(전월비): -6.9%, 9월(1.3%), 예상치(-0.5%)

■ 주요 경제 이벤트(12/7 현지시각 기준)

- 호주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미국 10월 무역수지, 12월 소비자신용잔액
- 유로존 3/4분기 성장률, 독일 12월 ZEW 경기기대지수
- 독일 10월 산업생산, 중국 11월 수출입, 일본 10월 가계지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채 장단기 금리격차 축소,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장애물 - 블룸버그

(A Massive Yield-Curve Headache Awaits the Federal Reserve)

- 연준의 주요 인사들은 최근 테이퍼링 가속화의 필요성을 언급. 하지만 금리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채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플래트닝 현상이 발생. 최근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스프레드는 74bp로 2020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
- 이는 국채수익률 곡선의 왜곡을 유발할 뿐 아니라, 통화긴축 가능성에 따른 기술주 주가의 하락을 초래하는 문제를 초래. 이러한 상황은 연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서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익률곡선의 스티프닝 유도가 필요하며, 세인트루이스 연은 블라드 총재가 제시했던 대차대조표 축소 등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

■ 중국과 세계경제, 코로나 19 이후 비동조화 현상이 심화 - Financial Times

(China is faltering, but the world is not feeling the effects)

- 코로나 팬데믹 이전 세계경제는 중국의 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 다만 신흥국과 중국 경제의 비동조화가 5년 전부터 확대되기 시작. 이는 마·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이 내수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선택한 것이 주요 원인
- 세계와 중국의 비동조화는 마·중 경제 냉전, 디지털 혁명, 기후변화 문제 대처 등으로 지속될 소지. 이러한 역학 관계의 변화는 중국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에 비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

■ 코로나 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국별 양극화를 다시 인식시키는 계기 - 블룸버그

(Omicron Should Be a Wake-Up Call for the World)

■ 영국의 디지털화폐 도입, 개인정보 및 신용 보호 관련 문제를 인식할 필요 - Financial Times

(The Bank of England should beware the lure of digital currency)

■ 국제 천연가스 가격, 공급 증가와 온화한 날씨 등으로 향후 추가 하락 예상 - WSI

(Balmy Forecasts Send Natural Gas Prices Plungin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